

[성구]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사 41:4)



계신총회보

발행처: 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계신총회
주소: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229-1
우편번호: 12736
발행인: 채희근(kyesin@gmail.com)
편집인: 윤성천
전화: 031-768-1980
팩스: 0303-0944-2936

2024년 1월 1일 (월)

The Presbyterian General Assembly News (Kyesin) • 홈페이지: kyesin.org

제 140호 1



총회장 신년사

총회장 채희근 목사
도봉교회

존경하는 총회원 및 총회 산하 모든 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 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금년에도 지구촌에는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난리와 난리가 계속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즉 전쟁과 지진, 전염병과 기후변화로 인한 기근과 홍수 등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더 심하고 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여전히 계속되어야 할 사명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도와 선교를 통한 복음전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이 점점 서진(西進)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의 천산산맥을 넘어서 저 강력한

사탄의 회(會)인 무슬림(Muslim)권으로 깊이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복음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새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포스트모던시대(Postmodern era)인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여러 가지 무질서와 비정형화 현상으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득세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인본주의적 운동을 바로 분별하고 배격하며, 사탄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밝히 깨달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새해 교단 산하 각 교회 안에서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의 표준학습서인 대소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강력 추천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경건생활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새 계약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계약백성답게 살지 못하므로, 지난 코로나 19 전염병 재앙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주자주 자기백성을 징치(懲治)하시지만(삼하 7:14), 물론 이것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계약적 사랑(Covenantal Love)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서 끊임 없는 개인 구원건설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갑진년(甲辰年) 신년 벽두에 우리 모두가 복음전파의 사명을 다시 한 번 경성하고, 거룩한 교회건설 운동에 힘써 참여하며, 그리고 자신의 구원을 잘 이루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와 긍휼이 새 해 우리 총회원 및 총회 산하 모든 교회 성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2023학년도 2학기 종강 예배

2023학년도 2학기 종강 예배가 11월 23일(목) 오후 6시 30분에 명륜교회에서 원장 장백준 목사(초월제일교회)의 사회로 있었다. 윤석현 목사(수원정은교회)의 기도에 이어 강도를 맡은 원장 장백준 목사는 디모데전서 4장 11-16절을 근거로 “아버지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강론한 후 운영위원장 이용주 목사(송탄북부교회)의 축도로 종강 예배를 마쳤다.

다가오는 2024학년도 1학기 개강예배는 2024년 3월 4일 월요일 오후 6시에 명륜교회 교육관에서 한다. 2023학년도 졸업예배는 2024년 2월 15일(목) 오후 2시에 명륜교회 소예배실에서 한다.

기사 유신승 전도사

계약신학연구원 2024년도 봄학기 신입 및 편입생 모집

- 과정**
 - ▷ 성경연구과정(8학기)
 - ▷ 신학연구과정(6학기)
 - ▷ 편목과정(2학기)
- 지원자격**
 - ▷ 고등학교졸업 및 동등학력 소지자
 - ▷ 수제 후 3년 이상 된 자
 - ▷ 당회장(담임목사)의 추천 받은 자
- 체출서류**
 - ▷ 홈페이지 양식(입학원서, 추천서, 이력서, 고백서)
 - ▷ 최종학력 졸업 및 성적 증명서
- 원서교부**
 - ▷ 방문 및 우편발송 또는 이메일
- 발송주소**
 - ▷ 서울 종로구 혜화로3길 6, 명륜교회 건물
- 원서교부 날짜**
 - ▷ 2024년 1월 1일 - 3월 4일(월)

- 면접시간**
 - ▷ 2024년 3월 4일(월) 오후 4시(신학원 사무실)
- 입학문의 연락처**
 - ▷ 입학상담 010-3790-0159
 - ▷ 진로상담 010-8781-7471
 - ▷ 신앙상담 010-2586-0461
- 좋은 제도**
 - ▷ 학비 무료
 - ▷ 온라인 강의 가능
 - ▷ 졸업 후 석사(Th. M.) 장학금
 - ▷ 졸업 후 본 교단 목사 안수
 - ▷ 졸업 후 선교사 파송
 - ▷ 졸업 후 여전도사 사역
- 문의사항**
 - 홈페이지: www.kyeyak.co.kr
 - 이메일: kyeyak1967@gmail.com

개혁주의
보수주의
복음주의 신학

성경을 바르고 깊이 있게 배우는 곳
영성과 지성과 인격을 갖추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는 길

연구원장: 장백준 박사(Th. D.) (전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명예원장: 박황우 박사(D. Min.) (전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설교



이창욱목사
성산교회 원로목사

다사다난했던 2023년을 보내고, 희망찬 2024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14)

새해에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든든히 붙들고, 기도예 힘쓰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복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됩시다.

첫째, 내가 반드시 복 주리라(13-14)

1.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입니다.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맹세까지 하셨습니다(삼상 2:6-7).

2.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반드시” 주시겠다고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의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일점일획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다 이뤄주십니다. 맹세까지 하셔서 보증하셨으며,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십니다(17-18).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복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신 28:2-6).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우상)도 복을 줄 수도, 복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복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뿐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시 16:2).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각 후보들이 아름다운 공약들을 많이 합니다. 공약은 일종의 약속입니다. 국민 앞에 꼭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일단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는 공약대로 지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이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자간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친구 사이의 약속도 지키지 않음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일점일획도 변함이 없이 다 이뤄주십니다(민 23:19).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으로 구원의 왕 곧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창 3:15).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4000년 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2000년 전 성탄절에 오셨습니다.

둘째, 너를 복 주고 번성케 하리라

“너를 복 주고 복 주며”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을 가리키며,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창 12: 2~3).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100세에 이삭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의 표상, 곧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갈 3:6-9).

그러면 복 받고 번성해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이 떠나라는 곳을 미련 없이 떠나는 것입니다(창 12:1).

우상의 도시 갈대아우르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죄와 욕심을 떠나야 합니다. 물욕과 정욕과 사욕을 떠나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이 버리라는 것을 미련 없이 버리는 것입니다(창 21:10).

인본주의를 써서 육신의 욕심으로 취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할 때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인본주의와 육신 중심을 떠나야 합니다.

3. 하나님이 바치라는 것을 미련 없이 바치는 것입니다(창 22:2).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믿음으로 바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래로 수양을 예비하시고 이삭을 살려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약속의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물질선, 인정선, 생명선을 초월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며, 순종의 조상이며,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셋째, 구원과 번성의 복을 주리라 (14)

축복의 내용은 “복 주고 번성케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구원과 번성의 복입니다(14). “복”이란 히브리어 원어에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1) 바라크 (ברך) -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뜻입니다.

2) 아샤르 (אשר) - “똑바르다”라는 뜻입니다. 3) 아타프 (אטף) - “선하다, 즐겁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이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생활입니다.

이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생활이 축복의 생활인 것입니다.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세상길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복된 생활입니다.

그러면 복에 복, 번성과 번성의 축복은 어떤 복인가?

1.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는 구원의 축복입니다(창 22:18).

여기 “씨”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마1:1).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아의 오심은 인류 최대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천하 만민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대인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요 3:16).

2. 믿음의 후손을 번성케 하십니다.

창 22:16-17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삭개오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눅19:9).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기독교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영적으로 잘되고,

세상 물질문명도 창성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이 대개 기독교 국가입니다. 불교가 성한 나라는 대개 못사는 나라들입니다.

3. 이름이 창대하리라(창 12:1-2). “네 이름이 창대하리라”는 인격이 커지는 명예의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거룩한 성민이 되게 하사 세계 만민이 두려워하는 뛰어난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셨습니다(신28:9-10)

넷째, 오래 참으라(15-20)

오래 참아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 믿음을 길러주시고, 복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 따라 합당한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의 연단을 잘 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손의 축복 약속을 받은 것은 75세 때였습니다.

11년을 참고 기다려도 자손을 주시지 않음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우러져서 애굽 여자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백세가 가까워도 약속의 자녀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하여 얻은 아들 “이스마엘이나 축복하소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14년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후사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75세 때에 처음 약속하시고 나서 25년 후 아브라함 100세에 그 약속을 이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복에 참여하려면 오래 참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 응답도 끝까지 참고 낙망하지 말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있습니다(마 24:11-13).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반드시 너를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믿음의 후손이 번성케 되며, 이름을 창대케 해서 천하 만민이 두려워하는 축복을 반드시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견고히 붙들고 오래 오래 참고 견뎌서 영육 간에 반드시 복 받고 번성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설교



남성호 목사
평강교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성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하고 영원한 그의 '아가페' 사랑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고,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을 '하가'(작은 소리로 읊조림)하면서 그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 성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요3:16)는 말씀을 성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까닭이 우리를 살리려는 사랑에서 시작된 구원 역사임을 말해줍니다.

2) 성자 하나님의 사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요일3:16)의 말씀은 그가 갈보리 십자가의 '목숨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목숨을 내어주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 성령 하나님의 사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고전13:1-13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5:22-23)는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첫번째 생명의 열매는 바로 '사랑'임을 우리들에게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은사들이라도 이 세상에 국한되고 일시적인 것인 반면에, 성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이 놀라운 '사랑'은 영원하고 절대적이며 우리들이 은사를 발휘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1. 사랑이 없는 은사들은 헛됨(1-3)

사도 바울은 이처럼 짧은 본문에서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표현을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사랑으로 행치 않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믿음이나 구제'의 행위들은 다 유익도 없고 소용도 없음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진정 가치가 있는 일들이 되도록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신 그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슌3:17)고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2. 사랑의 특성(4-7): 삶의 모습과 행동으로 나타남(15가지 특성)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13:35)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고, 요한 사도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일3:18)고 권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15가지의 사랑의 특성들을 자주 '하가'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특성들이 실제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몇년 전에 어떤 목사님과 함께 산책을 할 때, 그 분이 고전 13장을 선명하게 암송하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저도 그 이후에 이 '사랑 장'을 암송하고 자주 '하가'하며 지내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그 목사님처럼 '하가'하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4-7절). 아멘, 진실로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3. 영원한 사랑(8-13): 사랑의 영원성과 지속성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엡1:3-5)라고 사도 바울이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크고 놀랍고 영원한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른 은사들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하여 하늘의 완전한 것이 올 때는 결국 사라지지만,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으로서 없어지지 않고 영원과 영속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죄인 되고, 원수 된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도다"라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하여 잘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롬5:8).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로, 모든 은사들과 믿음과 소망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며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들인 것을 항상 기억하며 주를 닮아가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만 행하며 나가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13절). 아멘!

하와이 한빛장로교회



2023년 10월 18일(수) 저녁 7시에 하와이 한빛장로교회(담임목사 박건일)에서 장로 안수 및 권사 임직 감사예배가 열렸다. 1부 감사예배는 김기웅 목사(LA 하우스 교회)의 사회, 구왕서 목사(광흥교회)의 대표기도, 채희근 목사(도봉교회, 총회장)가 "임직자의 3대 자세"의 제목으로 설교를, 박상돈 목사(향민교회)

가 축도로 임직 감사예배를 마쳤다. 2부 임직식에서는 박건일 담임목사(하와이 한빛장로교회)의 서약, 이재영 목사(캘리포니아 벨벳장로교회, 미주노회장)의 기도 인도로 '구왕서, 김기웅, 박건일, 박상돈, 이용주, 이재영, 채희근(이상 목사), 정채목 장로(광흥교회)'가 안수 위원으로 참여하여 구교선 장로에게 안수

하였다. 이후 박건일 목사의 공포와 정채목 장로의 기념패(장로연합회 회원) 전달, 이재영 목사의 권면, 이용주 목사(송탄북부교회)의 축사, 한빛장로교회 교우의 축가, 구교선 장로의 답사 등의 순서로 임직식을 마쳤다.

하와이 한빛장로교회에서는 금번 장로 안수 및 권사 임직 예배를 준비하면서 정통적 개혁주의 장로교회 신앙을 교회에 뿌리내리고 후대에 계승하기 위하여, 2018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5년 여 동안 매주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장로교단이 신앙의 모범으로 따르는 신앙고백(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벨직 신앙고백, 도르트신경)과 교리문답(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하였다.

금번 임직 예배에 장로 안수를 받은 구교선 장로와 권사 임직을 받은 박순희 권사, 타 교회에서 권사 임직을 받았으나 무흠 5년 이상의 교회 출석과 신앙의

모범을 보임으로 공동의회에서 권사 인준을 받은 남성희 권사, 김기욱 권사까지 모든 임직자가 앞서 열거된 모든 신앙고백과 교리문답 공부를 성실히 수료하였다.

하와이 한빛장로교회는 정통적 개혁주의 장로교회가 신앙의 모범으로 따르는 신앙고백과 교리문답이 세대를 이어 계승하고 가르쳐야 할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여 2024년부터 2차 교리공부를 새롭게 시작하기로 하였다. 한빛 장로교회 박건일 목사는 인본주의 신학과 신앙의 풍조가 대세를 이루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마저 흐트러지게 하는 오늘날 교회 현실에서, 하와이 조그만 섬에 자리 잡은 한빛장로교회가 개혁주의 장로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며 좋은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제1회 개혁주의 신앙세미나

위례광명교회에서 개최



2023년 10월 30일(월) 09:30부터 12:00까지 교단 교육부 주최로 제1회 개혁주의 신앙 세미나를 위례 광명교회에서 개최했다.

김희신 목사의 사회로 계약신학연구원 원장인 장백준 목사가 대표기도를, 교육부 부장인 윤성천 목사가 배경 및 취지 설명을, 총회장 채희근 목사가 격려사를 하였다. 심명석 목사가 "칼빈의 구원에서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성경이 회개를 뭐라고 말하

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칼빈의 구원론에 있어서 회개는 믿음의 보조 수단이 아니며, 믿음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강화하고 믿음을 확고히 하는 수단이며, 믿음에 확신을 주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총 20명이 참석하였다. 교육부는 앞으로 연간 2회 정도 지속적으로 개혁주의 신앙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사 김희신 목사

수원교회 방문을 통한 장로회의 의미있는 전도활동



장로회의 후반기 예정된 행사 중 지교회탐방 전도활동으로 수원교회(정원식목사)를 방문하였습니다.

1부 순서에서는 수원교회 성도들과 장로회 회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현재의 상황을 공유하였습니다. 수원교회는 30년 전에 창립되어 코로나19 이전에는 자립할 수 있는 교회였지만 현재는 출석교인이 적어 자립이 안되고 총회와 지인들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성도들의 기도와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음을 담임목사님께서 설명을 하시며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여 주시는 계신장로회에 감사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이어서 장로회에서는 여러 장로



님들이 섬겨주신 후원금을 전달하고 성도님들께 따뜻한 갈비탕으로 대접해 드렸습니다.

식사 후 2부 순서에서는 ○○○ 장로님께서 후원해주신 떡과 전도용품을 가지고 조를 이루어서 전도활동을 펼쳤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로회원들은 열정적으로 전도활동하여 기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번 활동은 장로님들의 기도와 물질적 지원 덕분이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부부동반으로 참석하여 수고해 주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기사 정채목 장로

2024년 성남노회 주관

신년 연합 부흥사경회

대한예수교 계신총회는 2024년을 맞아 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기 광주시 초월읍에 위치한 초월제일교회에서 신년 연합 부흥사경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사경회는 성남노회의 주관으로 진행되며, 새해의 시작을 은혜롭게 여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경회는 1월 1일 월요일 저녁 7시에 고석남 목사의 설교로 시작합니다. 이후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매일 새벽 5시 30분, 오전 11시, 오후 2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이번 사경회에서는 총 열 명의 강사님들(고석남 목사, 장백준 목사, 채희근 목사, 이용주 목사, 남성호 목사, 유영길 목사, 박황

우 목사, 한재창 목사, 김광호 목사, 이창옥 목사)이 참여하여 새해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점심 식사는 사경회 기간 동안 무료로 제공되며, 이를 위해 평강교회, 상대원교회, 시온성산교회, 도봉교회가 함께 섬길 예정입니다.

* 사경회 예배영상 유튜브(구독, 알림 설정)-"계신총회" 검색

* 총회발전기금계좌: 농협355-0036-2383-53 (계신총)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사 성남노회

명륜교회

장로임직 감사예배



명륜교회(박세덕 담임 목사)가 장로 임직 감사예배를 10월 3일(화) 오전 11시에 명륜교회 본당에서 드렸다.

1부 예배는 당회장 박세덕 목사의 사회로 고읍중앙교회 조충연 목사(동서울 노회장)의 기도 후 설교에는 도봉교회 채희근 목사(총회장)가 등단해 고린도후서 4장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직분을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2부 임직식에는 세 명의 장로 임직자(조성현, 한정태, 서영진)와 교우들의 서약 후에 안수 위원(채희근, 고석남, 박황우, 조충연, 박세덕)의 안수가 있었다. 그리고 당회장의 장로 임직 선포 후 명륜교회 원로목사 고석남 목

사(증경총회장)의 권면이 이어졌다.

임직자를 대표해 조성현 장로가 답사를 하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명륜교회 박세덕 목사가 참석한 내빈과 순서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인사하며 광고했다.

끝으로 가락동부교회 박황우 목사(증경총회장)가 축도하며 예배와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임직 예배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한 바쁜 가운데 순서를 맡아주시는 목사님들과 기도와 축도로 격려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기사 김광원 목사